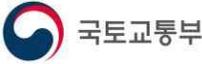


|   |             |  |  |   |
|---|-------------|--|--|---|
|  |             | <h1 style="margin: 0;">보 도 자 료</h1>  |  |  |
|   |             | 배포일시   | 2019. 12. 20.(금)<br>총 4매(본문3)                      |   |
| 담당 부서   | 건축문화<br>경관과 | 담 당 자  | 과장 김태경, 사무관 정문희, 주무관 차동욱<br>☎ (044) 201-3779, 3781 |   |
| 보 도 일 시   |             | 2019년 12월 23일(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br>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2. 22.(일) 11:00 이후 보도 가능 |  |   |

## 국립도시건축박물관 건립에 민간전문가 힘 보탠다

### - 국토부, 중앙부처 최초 공공건축가 위촉... 민간건축가 제도 활성화 기대

□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오는 2025.1월 개관하는 국립도시건축박물관\*의 건립사업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앙부처 최초로 “공공건축가”로 전속회 건축사를 2019. 12. 20. 위촉하였다고 밝혔다.

\* 부지 17,174㎡(약 5,200평), 연면적 17,050㎡(약 5,200평) 규모로 세종시 박물관 단지 안에 입지하며, 세계적인 도시건축박물관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음

○ 전속회 건축사는 금호동 Y하우스, 아산나눔재단 등 다수의 프로젝트에 참여하였고 문체부 젊은 건축가상, 서울시 건축상 최우수상을 수상한 젊은 건축사다. 현재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최연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.

○ 전속회 공공건축가는 국립도시건축박물관 건립이 완료되는 ‘25년까지 박물관 건립 및 전시 부문 설계부터 시공, 운영 등 사업 전반에 대해 전문적인 검토와 자문을 할 계획이다.

□ 이번 공공건축가 위촉을 계기로 민간전문가 제도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.

○ 공공건축가란 공공건축사업의 기획, 발주방식 등 사업전반에 걸친 발주청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당해 공공건축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민간전문가이다.

- 현재 공공건축가는 광역 및 기초 지자체에서 약 700여 명이 활동 중에 있다. 지금까지는 지자체 중심으로 운영·확산되어 온 공공건축가 제도를 중앙부처로는 처음 도입함으로써 국가 차원에서 힘을 실어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.

○ 개별 공공건축사업에 참여하는 공공건축가 외에 시·군 또는 도 전역에 걸쳐 시행되는 모든 건축행정에 대해 자문하는 총괄건축가 제도도 '17년 이전에는 2개(서울, 영주)에 불과하였으나 작년부턴 급속히 증가하여 현재는 부산시 등 23개 지자체로 확대·운영 중이다.

□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 제도를 일찍이 도입한 서울시, 영주시의 경우 도시 품격이 향상되었고,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좋은 공간과 시설이 대폭 확대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.



《은평구 도서관마을》 기존 주택은 열람실로, 주택사이 공간은 서가로 리모델링하여 헤매는 재미와 거니는 즐거움을 주는 도서관



《영주 복지관》 철도로 단절되어 낙후된 삼각지에 노인 및 장애인 복지관을 건립하여 주민 문화·복지공간으로 조성

□ 국토부 안충환 국토도시실장은 “국립도시건축박물관의 공공건축가 위촉을 계기로 민간전문가 제도가 지자체뿐 아니라 중앙부처, 공공기관으로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, 세계적 수준의 도시건축박물관으로 건립 및 운영함으로써 대한민국 대표 전시·문화시설로 거듭나겠다”고 밝혔다.

- (위치) 세종시 문화시설 용지 국립박물관단지에 입지
- (추진주체) 도시건축박물관 등 5개 박물관\* 건설은 행복청이 담당하고, 국토부는 도시건축박물관 전시준비 및 개관, 운영 담당
  - \* (건립시설) 도시건축박물관, 국가기록박물관, 디지털문화유산영상관, 디자인박물관, 어린이박물관
  - 관련부처           국토부           행안부           문화재청           문체부           행복청
- (소요예산) 약 1,418억원 ※ 국립박물관단지 전체 사업비 4,287억원의 약 33%
  - 설계·공사비(1,202억원, 행복청), 전시·소장품 확보비(216억원, 국토부)
- (사업기간) '16 ~ '25년
  - ('16/국토부) 전시기획 연구용역 → ('19~'20) 건립 및 구체화 용역 → ('20~'22) 기본·실시설계 → ('22~'24) 건립공사 → ('25/국토부) 박물관 개관



**【세종시 국립박물관단지 개요】**

- (부지면적) 75,402㎡, (연면적) 74,856㎡ : 개별박물관 4.8만㎡, 통합시설 2.7만㎡
- (5개 국립박물관) 도시건축박물관, 국가기록박물관, 디지털문화유산영상관, 디자인박물관, 어린이박물관 / (통합시설) 통합운영센터, 통합수장고

**【국립도시건축박물관 개요】**

- (부지면적) 17,174㎡, (연면적) 17,050㎡((세종도서관(21천㎡)의 80% 규모)
- (주요기능) 전시(상설·기획·야외), 자료 수집·관리, 연구·교육 등
- \* 도시·건축사, 미래 도시·건축, 모형 전시·체험, 주요자료 수집·보존, 학술행사, 체험교육 등